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에 관한 제검증 연구

A Controversy over the Publication Date of the *Great Dharani Sutra of Immaculate and Pure Light* (Mugu jeonggwang dae darani-gyeong)

김 성 수(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
| 2.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관한 최근의 논란 및 문제점 | 구명(究明) |
| | 4. 결 론 |
| | <참고문헌> |

<초 록>

이 논문은, 석가탑 사리공(舍利孔)의 바닥에서 발견된 묵서지편(墨書紙片: 佛國寺 無垢淨光塔 重修記)이 최근에 해독되는 과정에서, '석가탑 「무구정광경」은 고려시대의 소산(所産)'이라고 언론에 잘못 보도에 사항에 대한 시정(是正)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관한 최근의 논란 및 문제점에 관하여 논술했다.

둘째, 중수기의 해석 문제 및 석가탑의 조탑년대 등을 다루었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의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경과보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 사리함 개부(蓋部) 내면(內面)의 명문(銘文)과 「무구정광경」의 권미제(卷尾題)의 글씨를 컴퓨터그래픽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 서사자(書寫者)와 석가탑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사자(筆寫者)는 동일인물(同一人物)이며, 이 동일인물이 동일년도(同一年度)에 구황리석탑 사리함과 석가탑 「무구정광경」 권미제를 각각 다른 형식으로 사성(寫成)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刊行時期: 목판 판각의 년도)는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서사(書寫)년도인 '706년'임을 입증(立證)하였다.

要語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무구정광경」, 간행시기, 간행년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07년 5월 5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7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rrect the errors in news reports which claimed that the *Great Dharani Sutra of Immaculate and Pure Light*(Mugu jeonggwang dae darani-gyeong) was produced in the Goryeo Period. This argument began with the mistakes in recently deciphering the pieces of document found inside the Seokgatap, which recorded its restoration at the Pulguk Temple.

What this research discuss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ointed that news reports which claimed the publication date of the *Great Dharani Sutra of Immaculate and Pure Light*(Mugu jeonggwang dae darani-gyeong) as the Goryeo Period were wrong. Second, problems in deciphering the document of Seokgatap's restoration and assuming the actual date of building Seokgatap are discussed. Third, the complete report on the relics discovered at Seokgatap, submit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analyzed. Fourth, the inscriptions found inside the sari-ra case discovered in the three-storied stupa of Kuhwangri in Kyungju and the writings at the end title of the *Great Dharani Sutra of Immaculate and Pure Light*(Mugu jeonggwang dae darani-gyeong)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corroborate that the *Great Dharani Sutra*(Mugu jeonggwang dae darani-gyeong) was published in 706, when this *Great Dharani Sutra* was dedicated inside the sari-ra case.

Key words : *Great Dharani Sutra of Immaculate and Pure Light*(Mugu jeonggwang dae darani-gyeong), *Great Dharani Sutra*, Publication Date, Date of the Relics

1. 서론

최근 언론과 학계 등에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他羅尼經: 이하 ‘무구정광경’으로 약칭함)¹⁾」의 간행시기 등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1966년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대한 선학들이 구축한 통설은 ‘706-751년에 경주(慶州)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학설이 정설(定說)이었다.²⁾

그런데 근래에 들어, 석가탑에서 「무구정광경」이 발견될 당시 이 경이 안치(安置)되었던 금동사리의외함 밖(外部)의 하단부에서 함께 발견된 묵서지편(墨書紙片)이 해체·분리되고, 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 묵서지편이 ‘무구정광탑(無垢淨光塔: 석가탑) 중수기(重修記)’임이 확인되었다. 최근 이 중수기의 전체 내용 및 문맥(文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해독된 사항이 성급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경」은 11세기 탑 보수 때 넣어, ‘무구다라니’ 세계最古 목판인쇄물 아닐 수도”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연속하여 보도되었다.

이로 인하여 현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목판인쇄도서인 「무구정광경」이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오해됨으로써 잠시나마 학계와 사회 일각에 충격을 주었고,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가 상대적으로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이 될 것이라는 등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석가탑 중수기’의 해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중순에는, “석가탑 742년에 완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

1) 석가탑에서 발견된 묵서지편이 근자에 해체·분리되면서, 여기에 <無垢淨光塔 重修記>라는 제목이 기입(記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구정광경’이라 함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입각하여 조탑(造塔)한 탑 즉, 석가탑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약칭(略稱)할 때에도, 이에 입각하여, ‘무구정광경’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2) ① 김성수, 「無垢淨光大他羅尼經의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19-34. 참조.
② 이흥직, “慶州 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제4호(1968. 5), 168-198.

종래 <국립중앙박물관>은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에 관한 소장 유물의 ‘전시 안내문 및 홍보자료’ 등에 위 ②의 학설에 의하여 ‘706-751년’으로 표기한 바 있다.

경은 적어도 742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주장이 언론의 보도로 대두됨으로써,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존하는 세계최고(最古)의 목판인쇄도서인 「무구정광경」은 우리 민족의 고대(古代)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동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서부터 전문 학술연구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이와 같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구정광경」의 세계문화사적 위치가 일순간 숙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일처럼, 왜 위와 같은 기사들이 언론에 느닷없이 보도되는가?³⁾ 그것은 혹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지학 및 고고미술사학 등 학계의 연구방법론이 아직 확고부동하지 못한데서 기인(起因)한 것은 아닌가?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서두에서 언급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706-751)에 대한 기존의 통설은, 이 도서(경전) 1권 전체가 최초로 납탑된 사례(706) 및 불국사의 창건년도(751)를 각각 그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는 석가탑에 납탑된 「무구정광경」의 형태서지학 등의 특징과 관련한 직접적인 고증(檢證)이 아니다. 즉, 이 불전이 중국에서 번역되고 신라에 수입된 후, 이 도서 1권 전체가 최초로 납탑공양된 경주 구황리석탑(황복사지 삼층석탑)의 조탑년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이 탑의 사리함 개부(蓋部) 내면의 명문(銘文: 706)과, 석가탑의 조탑년도를 가늠하기 위한 불국사의 창건년도와 관련한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의 기록(751)에 입각한 간접적인 고증인 것이다.

위와 같이,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대한 고증이 석가탑의 조탑년도와 관련한 간접적인 고증일 경우 새로운 고문헌이 발굴·해독될 때마다 위 학설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대한 고증은 오로지

3) 설령, 위 목서지편이 판독되면서 「무구정광경」이 고려시대인 11세기에 석가탑 속에 납입된 것이 정말 확인되었다고 가정(假定)해 보자. 그렇다면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신중하게 연구되고 거듭된 토론을 거친 연후에, 그리고 사회지도자들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이후에, 관련 사실이 언론에 정식으로 보도되어야 마땅할 정도로 중차대한 민족문화사(民族文化史)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무구정광경」 그 자체의 형태서지학적인 특징 등에 입각한 직접적인 검증만이 고정불변한 정설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1990년대 이후 ‘석가탑 「무구정광경」’ 자체의 형태서지학적 특징 등에 입각한 직접적인 일련의 고증을 시도·연구⁴⁾한 바 있는 필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대하여 재검증하고자 한다.

- 4) ①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諸異說의 分析,” 『國際文化研究』(淸州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第9輯(1992), 109-136.
- ② 金聖洙, “韓國 木板印刷의 起源年代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書誌學會) 第10輯(1994), 425-478.
- ③ 金聖洙, “韓國 印刷文化의 始原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3輯(1997. 6), 1-46.
- ④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4輯(1997. 12), 43-74.
- ⑤ 金聖洙, “「無垢淨光經」의 刊行과 關聯한 몇 가지 論證,” 『書誌學研究』 第16輯(1998. 12), 157-182.
- ⑥ 金聖洙,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인쇄술의 기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1999. 6).
- ⑦ 金聖洙, “석가탑 「무구정경」 바탕종이 및 무주자의 사용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323-344.
- ⑧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項 考證에 의한 世界木板印刷圖書의 起源에 관한 研究(A Study on the Origin of Printed Books in the world by investigation on publication information on *Mugujonggwangdaedaranigyong*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Origin of Printing(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 주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개최일시: 1999년 10월 19일 - 10월 20일, 개최장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65-143.
- ⑨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漢譯年度 및 刊行地에 관한 研究,” 『東方學志』(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第百六輯(1999. 12), 43-126.
- ⑩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項 考證에 의한 韓國印刷文化의 起源年代 研究,” 『書誌學研究』 第19輯(2000. 6), 403-501.
- ⑪ 金聖洙,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 ⑫ 金聖洙, “석가탑 「無垢淨經」의 陀羅尼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0輯(2000. 12), 299-323.
- ⑬ 金聖洙, “「무구정광경」의 간행에 관한 중국측 반론에 대한 비판,”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477-506.
- ⑭ 金聖洙, “「무구정경」의 서법에 관한 분석,” 『書藝學研究』 제4호(2004. 5), 131-193.

2.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관한 최근의 논란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첫째로 최근에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____記; 석가탑 중수기)’가 해독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언론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둘째로 위 중수기의 해독의 문제를 살펴본 후, 셋째로 중수기에 나타난 석가탑 조탑년도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넷째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도자료 등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한다.

2.1 언론의 최근 논란

첫째, 모 신문의 3월 9일자 제2면 머리기사에 <‘무구다라니’ 세계最古 목판인쇄물 아닐 수도>라는 대제목 및 ‘석가탑 重修記 판독결과 “11세기 탑 보수 때 넣어”’라는 소제목 등으로,

세계최고(最古) 목판인쇄물[도서]로 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신라 때(8세기초~751년 이전)가 아닌 고려초(11세기 초반) 것이라는 ‘반증자료’가 나왔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重修記)’가 최근 판독되면서 이 불경이 11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이다. ... 2005년 중수기의 존재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 목서지편[중수기]의 본격 판독에 들어갔다. ... 국립박물관 오영선 학예연구사는 “탑 창건 초기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고려 때 보수하면서 ‘도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적었을 수도 있다”며 “신라 것일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위원은 “금동제사리외함이나 은제사리합 등 석가탑 창건 때 넣은 것이 분명한 사리유물은 중수기에 적혀있지 않다”며 “중수기에 적힌 유물은 고려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⁵⁾

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의미는 마치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위원’의 검증이 완료됨으로써 「무구정광경」이 고려의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5) 조선일보, 2007년 3월 9일(金; 제26812호), A2면.

둘째, 그 다음 날 위의 신문 제19면에 다시,

“무구다라니 제작 시기?” ... 중앙박물관 “. . . .”

라는 제목 및 관련 기사와 사진 2장이 수록되어 보도됨⁶⁾으로써, 전 날의 위 신문의 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명이나 하는 듯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셋째, 위 신문 4월 24일(火) 문화면에, ‘석가탑 중수기 판독문’에 백지 두 쪽, 중앙박물관 판독 정확성 여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묵서지편(무구정광탑 중수기)’이 낱장으로 분리된 총 110쪽 중 70쪽과 71쪽에 대하여, 중앙박물관은 “문서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원래부터 백지였다”고 주장하고, 박찬숙 국회의원측은 “70쪽과 71쪽이 원래부터 백지라면, 1966년 발견 당시 상황에 맞게 종이를 되접어 보는 등 백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⁷⁾

넷째, 2007년 5월 16일 <동아일보> A21(문화)면에, “석가탑 742년에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박상국 문화재위원은 ‘석가탑 중수기(1024)’를 새롭게 해석하여, ‘석가탑 완공년대가 742년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석가탑에 봉안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적어도 742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⁸⁾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위의 보도 기사 등에 대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를 둘러싼 최근 및 근래의 문제점들을 항목별로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 첫째의 사항은 ‘석가탑 중수기’의 해독과 관련한 오독(誤讀)으로 인한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위 둘째의 사항은 위 모 신문의 문제 제기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

6) 조선일보, 2007년 3월 10일(土; 제26813호), A19면.

7) 한편 이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명백한 증거나 자료 공개 없이 백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마치 ‘국립중앙박물관이 위 두 쪽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8)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705160091>

측의 신속한 대응이 없음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

셋째로, 위 셋째의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목서지편의 백지(70, 71쪽) 부분에 대한 논란의 문제로 판단된다.

넷째로, 위 넷째의 사항은 ‘석가탑 중수기’에 나타나는 석가탑의 완공년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를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와 연결시킨 결과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사항 및 그 문제들은 석가탑에서 「무구정광경」이 발굴되면서 함께 발견된 목서지편(석가탑 중수기)가 최근에 해독되면서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을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와 결부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간행년대의 문제가 설왕설래(說往說來)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2.2 중수기 해석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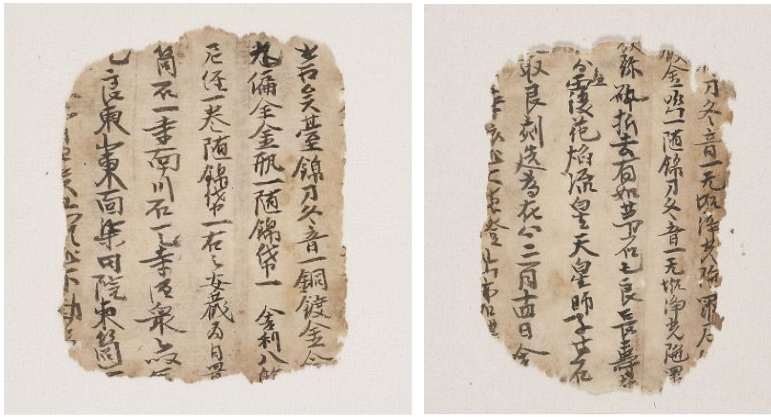
위 3월 10일자 신문 기사 중 제시된 “무구정광탑 중수기”의 사진판 및 판독문을 살펴보면,

○○矣 臺錦刀冬音—銅鍍金○⁹⁾ / ○刀冬音—无垢淨光他羅尼○(이상 첫째 줄) / 九偏全金瓶—隨錦帑— 舍利八○ / ○金○[函]¹⁰⁾—隨錦刀冬音—无垢淨光他羅(이상 둘째 줄) / 尼經—卷隨錦帑—右之安藏爲白置(이상 셋째 줄 상단)¹¹⁾

9) 각주 5)의 신문, 제19면 관련 기사 중의 판독문 내용의 일부.

10) ‘金○’: ‘金函’으로 판독할 수 있음(안승준,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의 解讀,” 『신라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 발표문(별첨자료)』, 제6쪽, 각주 37)의 註文, 재인용).

11) 조선일보, 2007년 3월 10일(土; 제26813호), A19면.



<그림 1> 무구정광탑 중수기의 일부¹²⁾

라 하였다.

이 인용문 서두의 ‘銅鍍金○’이라는 한자(漢字)에서의 ‘○’ 글자를 이 신문 기사의 우측에 수록된 첫 번째 사진의 오른쪽 세로 첫줄의 맨 하단에 그 절반이 부식(腐蝕)된 글자를 살펴보면, 이 ‘○’ 글자는 그 첫 3획(‘今’字와 類似)은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의 글씨를 문장 속에서의 의미상 합당하다고 추정되는 글자를 제시하여 보면, 이는 ‘뚜껑이 있는 상자’에 해당되는 ‘盒(합)’자(字)일 개연성이 크다. 즉, ‘동 도금합(銅鍍金盒)’이라 보면 문장상의 내용이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 ‘○’ 글자는 ‘盒’이라는 글자가 부식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따라서 ‘동도금합’은 석가탑의 조탑(造塔) 당시에 납탑공양(納塔供養)한 금동제사리의함(金銅制舍利外函)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 신문 3월 9일자 기사 중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위원은 “금동제사리의함이나 은제사리합 등 석가탑 창건 때 넣은 것이 분명한 사리유물은 중수기에 적혀있지 않다”며 “중수기에 적힌 유물은 고려 것으로 보는 것이

12) <국립중앙박물관> 공개 사진.

논리적”이라 말했다>¹³⁾는 부분의 기사는 분명 큰 오류(誤謬)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위 중수기의 판독문 내용에서 우리는, ‘동도금[합; 금동제사 리외함] 刀冬音(도두름)¹⁴⁾ 하나’ 및 ‘무구정광다라니[경] 9편(偏)’ ‘전금병(全金瓶) 하나’ ‘사리 8[顆(과)]’ ‘금[합] 하나’ ‘무구정광다라니경 1권’ 등은 오히려 석가탑 조탑 당시에 납탕공양되었던 것을 11세기에 다시(再) 납탕공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립중앙박물관>은 3월 9일에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 판독문”을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울러 이 목서지편이 최소 4종으로 구성되어 있음¹⁵⁾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승준 전문위원은 “문서에 의하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석가탑을 중수할 때 재안치(再安置)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중수 때 다라니경을 탑에 안치했다는 대목이 중수기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석가탑 중수 때 다라니경을 새로 만들어 넣은 것으로 보는 것은, 중수기 고문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오독(誤讀)”¹⁶⁾이라 하며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문제를 일단 규명(糾明)하였다. 그리고 3월 24일에 개최된 <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에서 안승준·김태식이 공동발표한 “석가탑중수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논문에서, “석가탑 창건기에 「무구정[광]경」은 두 종류(권자본, 죽간본)가 봉안되었을 것이며, 「보협인다라니경」은 필사본(筆寫本)인 데다 시주자를 밝히고 있고, 「무구정[광]

13) 주 5)의 본문내용 중.

14) 刀冬音 : 冬音(드름)은 생선 스무 마리나 나물 스무 움큼을 줄로 엮어 헤아리는 단위로 쓰인다.(장세경, 「이두자료읽기사전」,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48면) 그러나 앞에 刀가 붙어 刀冬音이 쓰인 용례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또한 줄이나 끈으로 묶은 물건을 헤아릴 때 쓰인 단위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1966년 해체 수리 당시 사진을 보면 수많은 직제가 수습되었는데 이러한 직제 비단을 묶은 단위가 도두름으로 보여진다(鄭永鎬 외,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72-73면 도판자료 참조.).(안승준,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의 解讀,” 「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 발표문(별첨자료)」, 제6쪽 각주 37)의 註文, 재인용).

15) ① 보협인다라니경, ② 1024년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 ③ 1038년 불국사 서석탑중수형지기(西石塔(석가탑)重修形止記), ④ 보시명공중승소명기(布施名公衆僧小名記).

16) 김태식 기자, “무구정광다라니경 통일신라시대 작품 맞아,” 「연합뉴스」 2007년 3월 9일 (17:28), <http://app.yonhapnews.co.kr>

경』 두 종류는 판본도 다르고 시주자를 별도로 밝히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무구정광경』이 석가탑 창건 당시에 봉납했던 것을 중수 때 재안치한 사실이 드러난다”¹⁷⁾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위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위원’이 ‘銅鍍金○’의 ‘盒(합)’자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의 인용문¹⁸⁾과 같이 『무구정광경』을 고려의 것으로 오판(誤判)한 것을 검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를 언론에 성급하게 보도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판독부실로 인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유구성은 물론 정체성마저 무너트리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서 우리는, 문화재 또는 년대가 불확실한 특정 고서의 간행년대를 고증하는데 있어서, 고문서 및 문헌해석학 또는 교감학(校勘學)적인 단일(單一)의 편향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서지학의 연구방법에서 편향적인 연구방법은 지양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2.3 중수기에 나타난 석가탑 조탑년대의 문제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정설로 인정되었던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706-751년)¹⁹⁾는 『무구정광경』이 불국사의 중창 및 석가탑의 조탑 이전에 완성되어 석가탑의 탑신 사리공(舍利孔) 속의 사리함 내에 납탑공양(納塔供養)된 사실(事實; 史實)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이 3월 9일에 공개한 “무구정광탑 중수기”의 판독문에서 흥미로운 사항이 있다. 즉, 이 판독문 중

17) 김승욱 기자, “석가탑 창건기에 무구정경 두 종류 봉안,” 『연합뉴스』 2007년 3월 21일, 09:31 송고, <http://app.yonhapnews.co.kr>

18) 각주 5)의 본문내용 참조.

19) 『삼국유사』에 의거하여 김대성이 불국사를 중창한 착공년도인 751년(경덕왕 10년)을 그 하한년도로 하고, 경주 구황리(전(傳)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외함 개부(蓋部) 내면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안치한다”는 기록이 남겨진 706년을 그 상한년도로 규정하는 학설.

‘大平四年歲次甲子三月日月含山瑜伽業 /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____記
右塔開闢爲白乎事之段新羅第(三) / 十五代__景德大王朝相公大城角干
亦__王矣則位天寶元年壬午元成立 / 爲白乎矣 __惠恭大王矣代良中沙
?成立爲白?事?置在亦天寶元(年) / 壬午元高麗__太祖神聖大王元第□
□□__顯宗元文大王??至乎大平四(年) / (甲)子??引乎二百八十五年 <王
代曆良中>’^{20) 21)}

라 하여, 석가탑(右塔)의 조성경위 등을 기술하고 있다. 안승준 전문위원의 해독
에 의거하면,

이 탑을 개창하였던 일은, 신라 제35대 경덕대왕 조에 상공(相公)인 대성
(大成) 각간(角干)이 왕이 즉위한 천보(天寶)원년인 임오(壬午: 742; 경덕왕
1)에 만들어 세우기로 하였으며, 혜공왕 대(765-780)에서야 만들어 세운 것이
라 한다.²²⁾

라고 이두(吏讀)로 해독한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에서 안승준·김태식 공동연구자는 ‘신라 경덕왕이 즉위한
해(년도) 즉, 천보원년 임오(742)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중수기의 언급을
주목하면서, “이는 김대성이 주도한 불국사 창건이 경덕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²³⁾이라고 덧붙였다.²⁴⁾

20) http://museum.go.kr/kor/int/int_boa_new_vie.jsp 중수기 관련 보도자료, <자료 1 : 불국
사무구정광탑중수기 관독문>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____記

21) 안승준,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의 解讀,” 『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참고.

22) 안승준,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의 解讀,” 제5쪽.

23) 김승욱 기자, “석가탑 창건기에 무구정경 두 종류 봉안,” 『연합뉴스』 2007년 3월 21일.
09:31 송고. <http://app.yonhapnews.co.kr>

24) 위 중수기의 관독문 및 번역문에 의거하면, 석가탑 착공년도는 74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완공년대는 혜공왕대로 내려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다면, 『무구정광경』
의 간행년대 또한 석가탑의 조성년대와 관련하여 ‘706-742’ 또는 ‘706-780’ 등으로 수정하
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중 후자를 선택한다면 ‘혜공왕의 재위기간 15년 가운데
그 어느 시기인가?’ 하는 등의 애매모호한 문제 등도 발생된다. 또한 위 안승준·김태식
공동연구자가 주목한 바와 같이, ‘경덕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김대성이 석가탑을
개창하였다’고 한다면, 불국사 가람(寺刹) 전체를 완공하는데 4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한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석가탑 삼층석탑을 완공하는데
이만한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석가탑(무구정광탑)이 경덕왕

무릇 년대가 불확실한 특정 도서인 「무구정광경」 간행년도를 증명하는 데에는, 이 도서가 납탈된 석가탑의 조성년대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단서(端緒)가 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구정광경」 간행시기의 증명과 관련한 석가탑(무구정광탑)의 완공년대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증(傍證) 자료에 불과할 뿐이며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대한 논증은 이 도서 자체의 서지학적인 특징 및 연구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논증임을 파악할 수 있다.

2.3 <국립중앙박물관>의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경과보고”

위 제1절에 논술한 바와 같은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타의 언론 및 학계와 사회 일각에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에 대한 파란(波瀾: disturbance)이 일어났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2007년 3월 28일(水)에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기자회견”²⁵⁾을 개최함과 동시에 이 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경과보고”²⁶⁾라는 보도자료를 게재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제5장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연대(年代) 문제’에서 다음의 인용문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5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연대 문제

◎ 8세기 초 신라 제작설의 근거

- 측천무후字: 당나라 측천무후가 집권한 690-704년 동안에만 통용된 新制字 4종(證・地・授・初)이 10번 사용됨.

의 즉위를 축하하는 조탑(造塔)이라면 742년 당해(當該)년 또는 그 이듬해에 삼층석탑의 기단(基壇)부와 탑신(塔身)부가 완성되어야 당연하고, 상륜(相輪)부 등의 마무리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수궁이 되는 문제이다.

25) ① 일시: 2007년 3월 28일(수) 11:00. ②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③ 내용: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경과보고 브리핑.

26) http://museum.go.kr/kor/int/int_boa_new_vie.jsp

- 造塔 공양 경전: 통일신라시대에는 '무구정광다라니경'에 의한 조탑 공양이 이루어졌고, 고려시대에는 '보협인다라니경'이 조탑 공양의 중심 경전이 됨.
- 書體: 다라니경의 글씨체는 울진 봉평비·영일 냉수리비·황복사 3층석탑 사리함 명문과 유사한 신라 특유의 서체임.
- 紙質: 신라 특유의 종이 가공법으로 만들어진 楮紙임. 이는 중국 고대의 경전에 사용된 '麻紙'와는 차이를 보임.
- ◎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 관찰한 결과 서석탑중수형지기, 보협인다라니경, 그리고 무구정광다라니경 순으로 섬유가 치밀하게 보임.
- ◎ 중수기 상에 보이는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의미는 통일신라시기에 불안하였던 것을 재봉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며, 고려시대 보협인다라니경이 사리기 외부에서 발견된 것과는 달리 무구정광다라니경은 사리기 내부에 안치되었음.
- ◎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연대를 통일신라 이외로 비정한 학자는 없음.
- ◎ 중수기 등 목서지편에 대한 내부 연구자의 판독결과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시대를 기존 통설과 달리 설정할 특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불교사, 불교사지학, 언어학, 다라니경, 서예사, 고찰자, 보존과학자 등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2007년 전반기부터 해독을 비롯한 구체적인 연구조사 개시 예정.”²⁷⁾

라 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구정광다라니경」은 8세기 초 신라에서 제작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그 근거로 ① 축천무후자(字)의 혼용, ② 통일신라시대의 조탑(造塔) 경전으로서의 「무구정광경」, ③ 영일 냉수리비·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함 명문과 유사한 신라특유의 서체(書體), ④ 신라 특유의 종이가공법이 나타나는 지질(紙質)의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근거 제시는 지극히 합당(合當)한 논거(論據)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현미경의 관찰 결과, ① 서석탑중수형지기(목서지편), ② 「보협인다라니경」, ③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순서로 섬유가 치밀하게 보인다'는 것은, 목서지편이나 「보협인다라니경」보다 「무구정광경」이 그 제작년대가 더 오래된 것임을

27) 상계주.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묵서지편(서석탑중수기)이나 『보협인다라니경』과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경』의 차이는 현미경 관찰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셋째, ‘고려시대 『보협인다라니경』이 사리기 외부에서 발견된 것과는 달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사리기 내부에 안치되었다’는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경과보고” 보도자료의 내용은, 석가탑 사리공(舍利孔) 내에서 사리함 속에 내장(內藏; 봉안)되었던 유물은 고려시대 현종 당시 석가탑을 보수할 당시 통일신라시대의 그것을 재봉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묵서지편 및 동경(銅鏡) 등 사리함 외부에 안치(安置)된 유물은 고려시대 현종 당시에 비로소 봉안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중수기 상에 보이는 『무구정광경』의 의미는 통일신라시기에 봉안하였던 것을 재봉안(再奉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 등으로 그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볼 수 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⁸⁾

위와 같은 <국립중앙박물관>측의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의 문제에 관한 공식 표명은, 8세기초 신라제작설의 근거로 ① 축천무후자 · ② 조탑공양정전 · ③ 서체 · ④ 지질(紙質)로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한 점 등에서 분명 탁견(卓見)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의 문제에서, 종래 학계의 정설로 인정되어온 ‘706년-751년’ 보다 구체적인 시기라 할 수 있는 ‘8세기 초’로

28) 그런데 위의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대를 통일신라 이외로 비정한 학자는 없음’이라는 부분은, 아마도 서지조사 내지는 관련 참고자료의 내용 검색에서 간과하였던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어떠한 연유와 과정에서 게재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ooo,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연구 -諸本の 文字異同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06집(1999. 12), 511-574.)라는 것이 한 편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70-97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 또한, 위의 제1절에서 제시한 오판과 마찬가지로, 당사본(唐寫本) 개보장(開寶藏) 등 몇 종과 『무구정광경』을 비교하기 위해, 오로지 각 문자의 이동(異同)에 관한 대교(對校)만으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를 추적하려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는 오판(誤判)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무구정광경』과 같이 간행기록이 없는 고서의 간행년대 고증은 교감학(文字異同) 등 단일 관점의 편향적인 연구방법으로는 결코 올바른 고증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새롭게 규정한 점은 괄목상대할 만큼의 탁견(卓見)으로 평가된다.

3.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구명(究明)

위 제2장 3절에서 논급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2007년 3월 28일(水)에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기자회견’ 및 이날 위 박물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 경과보고’의 내용은 매우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기자회견의 시간에 쫓긴 경향으로 인하여,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와 관련한 충분한 논증을 위한 논거 자료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본 장에서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경」의 형태서지학적인 측면 등 「무구정광경」 자체의 특징에 입각한 직접적인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먼저 「무구정광경」의 간행지역의 문제를 논증한 후, 다음으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의 문제에 대하여 재검증하고자 한다.

3.1 「무구정광경」의 간행지역

첫째, 「무구정광경」 목판인쇄본에서 무주제자(武周制字)²⁹⁾가 혼용(混用)된 문제를 주목하여 보면, 이 문제는 오히려 「무구정광경」이 중국 이외(以外)의 외국인 제3의 국가에서 제작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³⁰⁾ 무주제자의 사용이 중국(唐)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705년 이후(唐 中宗 즉위 이후)에, 따라서 「무구정광경」의 목판인쇄 제작국가는 통일신라 지역임을 증명할 수 있다.

둘째, 「무구정광경」을 인쇄한 종이 및 지질(紙質)의 문제를 조사하여 보면,

29) 각주 27)의 본문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측천무후字: 당나라 측천무후가 집권한 690-704년 동안에만 통용된 新制字 4종(證·地·授·初)이 10번 사용됨.’과 관련 사항.

30) 김성수, 「無垢淨光大他羅尼經의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217-232. 참조.

이 종이는 ‘① 두께: 0.082mm, ② 밀도: 0.82g/cm³, ③ 신라 특유의 종이 가공법인 도침(搗砧) 및 마연(磨研)에 의한 가공된 닥종이(加工 楮紙), ④ 황벽(黃蘗) 등에 의한 염색지’³¹⁾임은 이미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밖에 755년에 사성(寫成)된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의 경우, 종이의 표면에 관택이 있고(도침 및 마연의 증거) 그 두께가 0.05mm이고, 밀도 또한 0.64g/cm³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구정광경」을 인쇄한 종지와 흡사(恰似)한 종이라 볼 수 있다.³²⁾ 반면에 중국 고대(古代)의 종이 가공법은, 위와 같은 도침의 방법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야교·백토(白土)·밀랍 등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³³⁾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무구정광경」의 인쇄에 사용된 종지는 신라산(新羅産) 특유의 닥종이(楮紙)이기 때문에, 이 경을 인쇄한 국가는 바로 통일신라임을 파악할 수 있다.

3.2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본 절에서는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먼저 조탑경으로서의 「무구정광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구정광경」의 서체(書體: 書法; 筆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3.2.1 조탑경으로서의 「무구정광경」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8세기 초 신라 제작설의 근거”로써 ‘造塔 공양 경전: 통일신라시대에는 ‘무구정광다라니경’에 의한 조탑 공양이 이루어졌고, 고려시대에는 ‘보협인다라니경’이 조탑 공양의 중심 경전이 됨’³⁴⁾을 표명한 것은 탁견(卓見)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탑

31) ① 박지선, “기록물의 복원사례,” 「기록보존과 관리」 창간호(1996), 27.

② 國立中央博物館 保存科學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紙質成分,”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復原(內部) 報告書」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1989)의 요약문, 1면.

32) 김성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197-217. 참조.

33) 潘吉星, 「中國造紙技術史稿」 (北京: 文物出版社, 1979), 184-186.

(造塔)의 소의경전(所衣經典: 造塔經)으로서 「무구정광경」이 유행한 시기는, 「무구정광경」이 중국에서 704년에 번역되고, 이 경이 신라로 전래된 '705년경부터 9세기가 끝날 때까지의 통일신라 시대에 국한'되고, 고려가 건국된 932년 이후 10세기부터의 고려시대에는 「보협인다라니경」이 조탑경으로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탑파 중에서 「무구정광경」이 납입되었거나 소탑이 탑파 중에 납입된 사례 등을 조사하여 보면, 705년경부터 9세기까지에 국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 「무구정광경」 등이 납입된 한국의 탑파³⁵⁾

	所在 및 塔婆	造塔 年度	小塔의 數量	備 考
1	慶州 羅原理 五層石塔	705년경	金銅小塔 3基, 小木塔, 破片多數	「無垢淨經」內在 陀羅尼(呪) 紙片 出現
2	慶州 九黃里 三層石塔	706	99基	金銅舍利函銘文 中 “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 安置石塔第二層”
3	佛國寺 三層石塔 (釋迦塔)	751(8세기 중엽)	小木塔12基	「無垢淨光經」一卷 發見
4	華嚴寺 西五層石塔	755년경		「無垢淨經」內在 陀羅尼 (武周字 包含) 多數 出現
5	山淸 石南寺址 永泰二年銘	766		蠟製舍利壺 銘文 中 「無垢淨經」納入記錄
6	慶州 昌林寺址 石塔	855		無垢淨塔願記 依據
7	桐華寺 敏哀大王 石塔	863	鍍金木塔3基	
8	奉化 鷲棲寺 三層石塔	867		蠟石有蓋舍利壺 外部 銘文 ‘無垢淨經’ 供養史實 記入
9	黃龍寺 九層木塔址 (塔心礎石 方形舍利孔)	871	小石塔99基	金銅舍利內函 刹柱本記 銘文中

34) 각주 27)의 본문 참조.

35) 이 표는 강우방(姜友邦)이 작성한 ‘사리장엄(舍利莊嚴)의 성격구분(性格區分)’(姜友邦, “佛舍利莊嚴論,” 「佛舍利莊嚴」(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1), 169-174) 표 중에서 「무구정광경」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만을 추출하고, 여기에 근래에 발굴된 나원리오층석탑 다라니 지편(紙片)의 사례와 화엄사서오층석탑 다라니(武周制字가 포함되어 있음)의 사례 등을 필자가 추가하여, 하나의 독립된 표로 작성한 것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에 관한 재검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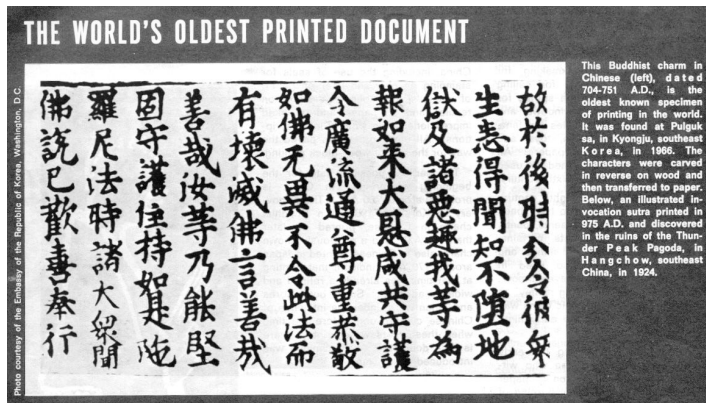
10	仲和三年銘 金銅圓套	883		
11	海印寺 吉祥塔	895	泥小塔157基 (99+77基一部) 回收	塔誌塲：‘無垢淨經’等 多數經典 納塔 銘文
12	禪林院址 三層石塔	9세기초	蠟石小塔69基 回收	
13	桐華寺 金堂 西塔	9세기	靑石塔99基	舍利塔誌(白紙두루말이)
14	奉化 西洞里 東塔	9세기	土塔99基	
15	聖住寺 石塔	9세기		無垢淨塔碑
16	公州 東院里 三層石塔	9세기	蠟石小塔7基	

따라서, 제2장에서 언급된 언론의 기사들에서 ‘「무구정광경」의 고려시대 제작설’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3.2.2 「무구정광경」의 서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구정광경」의 필법(筆法: 書體; 書法)은 그 결구(結構)가 부정형(不定形)하고 장법(章法)이 불균정(不均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³⁶⁾

36) 다시 말하여 석가탑 「무구정경」 본문의 필법은, 각 행 내에서 개개 문자의 서사에 있어서 그 크기(大小)의 차이가 심하고, 개개 글자의 좌변과 우방의 크기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필획의 각도 및 운필법 등 전체 서법이 자유분방하고 원시성을 띠어 질박하면서도 파격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하여 한 행 내에서 각 글자들의 배열 즉 그 행자수가 불규칙하고, 각 행 내에서 위 글자와 아래 글자 사이의 간격(字間)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전체 면 행렬의 배열상태인 장법 또한 불균정함으로써, 목판인쇄된 개개 면을 보면 각 행이 들쭉날쭉한 모양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가로줄의 배열(橫列의 章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석가탑 「무구정경」의 영인(影印) 권자본을 펴나가면서 그 전체적인 면모 및 서법을 관찰하면, 그 필법은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면서도 천연고수(天然古秀)의 서풍(書風)으로서, 조판된 전체면은 원융(圓融)과 조화(調和)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The UNESCO Courier」(1972. 12)에 수록된 석가탑 「무구정광경」 일부
(출전: UNESCO, 1972. 12. 8)

첫째, 「무구정광경」의 필법을 중국의 서법발전사(書法發展史)에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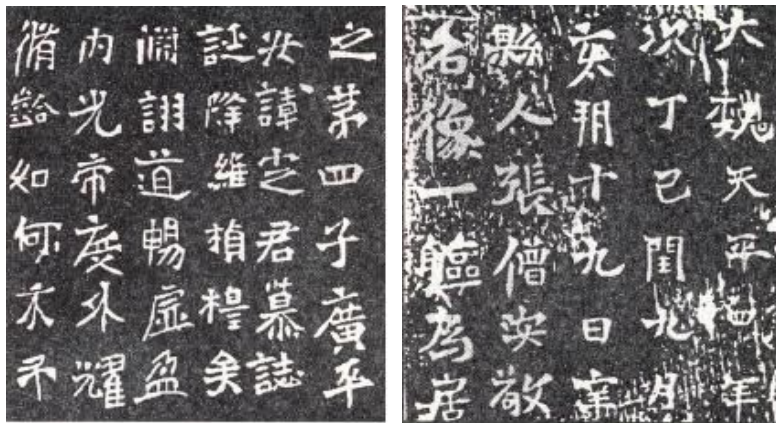
「무구정광경」의 서법은, 중국의 6세기초 특히 ‘비구해감조상기’를 비롯한 <용문이십품(龍門二十品)>에 나타나는 용문조상기들의 부정형한 서법에서 보이는 결구(結構)와 그 양식적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그림 3, 4 참조). 또한 「무구정광경」의 필법은 중국 6세기초의 마애서(摩崖書) 즉 <예학명(瘞鶴銘: 514)> · <논경서시(論經書詩: 511)> · <석문명(石門銘: 509)> 등의 서법과 흡사하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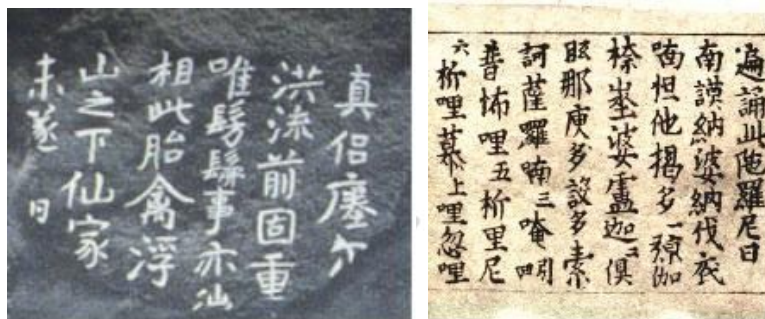
<元泰墓誌銘>(507) <張僧安造像記>(537) <比丘惠感造像記>(502) <鄭長猷造像記>(501)

<그림 3> 북위 조상기 · 묘지명에 나타나는 부정형의 미³⁷⁾

37) 송수영, “高麗 寫經書體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8), 11.



<그림 4> 북위 원태묘지명(507)³⁸⁾ 및 동위 장승안조상기(537)³⁹⁾



<그림 5> 예학명(514)과 「무구정광경」의 서법 비교

「무구정광경」은 중국에서 8세기초인 704년에 그 번역이 완료되고, 그 이후인 705년경에 신라에 전래된 것이라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왜) 위와 같이 중국의 6세기초의 서법 현상이 나타나는가?⁴⁰⁾

38) 黃思源 編, 『中國書法通鑒』(河南省: 河南美術出版社, 1988), 309.

39) 劉正成 編, 『中國書法鑑賞大辭典』上卷(北京: 大地出版社, 1989), 314.

40) 「무구정광경」의 본문 및 권미제의 경우와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 및 3-6세기 중국 북위 및 동위의 글씨들은 그 글자 가로획의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면서도 제각기 조금씩 다른 필법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6세기초 중국 북위(北魏)시대의 서법이 한반도 신라에 전파되고, 이 서법이 유행·정착되는데 20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⁴¹⁾ 다시 말하여, 중국에서 어느 특정 서법이 개발되고 이 서법이 중국 전역에 전파되고 유행하는 데에는 무려 20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듯이, 이 논리에 입각한다면, 중국의 특정 서법이 한반도에 전파되고 이 서법이 신라에서 유행하기까지 무려 200년의 세월이 요구된다고 본다면, <그림 5>에 나타나는 「무구정광경」 서법은 신라에서 '8세기초'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합리적(合理的)이고 논리적(論理的)임을 알 수 있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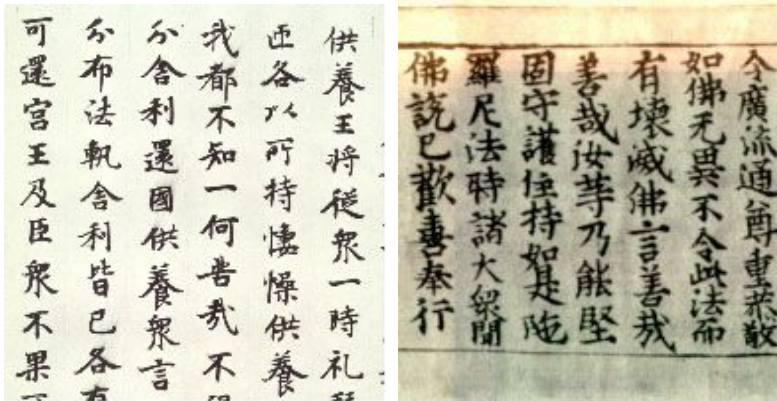
한편, <그림 6>의 왼쪽 사경(寫經)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7세기 이후 즉 수·당 시대의 사경(寫經)을 비롯한 중국의 글씨(書)들은 그 결구(結構)나 간가(間架)의 측면에서 이미 정형화(定形化)된 서체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⁴³⁾ 실제로 <그림 6>의 7세기말·8세기초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700년에

41) 주지하다시피, 서예(書藝: 書法)의 발전은 중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새로운 서풍(書風)이 문화의 중추지역에서 등장하면, 이 새로운 양식(樣式)의 서풍이 그 중심지역에서 일정기간 유행하다가 서서히 외부의 변방지역으로 침투하고, 변방지역에서는 도입된 새로운 양식의 서풍이 기존의 서풍에 영향을 끼치면서 신구(新舊)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마침내 새로운 서풍이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서법은 변화·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양상은 중국 북조서(北朝書)의 변천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에 소재하는 <중악송고령묘비(中岳嵩高靈廟碑: 456)>와 운남성(雲南省) 남녕(南寧)에 소재한 <찬보자비(爰寶子碑: 405)>는 그 서풍이 비야·험루(鄙野·險陋)한 점에서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즉, 남방[南朝]이나 북방[北朝]이나 할 것 없이 당시 문화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에서는 옛 서진(西晉: 265-316)의 양식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456년 당시의 남조는 송(宋) 효무제(孝武帝: 453-464)의 통치시기에 해당되고, 이 때(456) 중국문화의 중심부는 남조의 도읍인 건강(健康)이었다. 당시 건강에서는, 중국서예사상 서성(書聖)으로 추앙받는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 307-365)와 그의 아들인 왕헌지(王獻之)에 의해서 새로이 우려(優麗)하고 전아(典雅)한 예술적 서풍이 정착(定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식의 서법이 유행·보급되고 있었던 시대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식의 서법이 북조지역에 침투되어 북조의 서풍에 영향을 끼치기까지에는 많은 세월을 요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神田喜一郎 저, 崔長潤 역, 『中國書道史』(서울: 윤림필방, 1985), 134-135).

42) 상계주의 내용 참조 요.

43) 즉, 이들 글씨에서 특히 장횡획(長橫畫: 예컨대, 긴 가로획 즉 '無'자의 제8획, '光'의 제4획, '羅'의 제2획, '法'의 제6획 등을 의미함)이나 단횡획(短橫畫: 짧은 가로획 즉 '無'의 제2획,

중국에서 사성(寫成)된 「대반열반경」의 필법은, 그 필획이 평정(平正)하여 가지런하고 정형화되어 세밀하고 정제(整齊)된 해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필법의 풍격은 사경필사자(寫經筆寫者)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굳세고 힘차며 단정하고 엄숙한 사경의 특징을 보임으로써, 초당(初唐)의 구양순·우세남과 그 풍격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중국 「대반열반경」(700)⁴⁴⁾의 필법과 석가탑 「무구정경」의 필법

반면에 「무구정광경」의 필법은, 매 글씨마다 그 풍격이 자유분방하고 각 글자(書)의 크기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구정광경」의 필법은 그 필세(筆勢)의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남북조의 서법 특히 <예학명>·<논경서시>·<석문명>과 아주 유사하여 그 고졸(古拙)한 특징을 보임으로써, 700년에 사성된 「대반열반경」의 필법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⁴⁵⁾

‘淨’의 제8·9·10획 등의 획을 의미함)의 경우, 그 가로획이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수·당의 글씨들은 그 결구와 간가 등의 서법에서 통일되고 정형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44) 徐祖璠 等編, 『敦煌遺書法選』(甘肅省: 甘肅人民出版社, 1985), 112-113.

45) <그림 6>에서 「대반열반경」(700)의 필법과 석가탑 「무구정경」의 필법을 대조한 결과, 위와 같은 석가탑 「무구정광경」 필법의 특징에서 보았을 때, 만약 이 석가탑 「무구정경」이 중국에서 남북조 시대에 사성되고 판각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그러

요컨대, 「무구정광경」의 필법상의 특징을 중국의 서법발전사에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필법은 중국의 6세기초에 해당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 6세기초의 필법이 한반도에 전파되고 유행하는 기간을 2세기로 추산(推算)하면, 「무구정광경」의 필법이 한반도에서 유행할 수 있는 시기는 ‘8세기초’의 시기(時期)가 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무구정광경」의 필법을 한국의 서법발전사(書法發展史)에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무구정광경」의 필법을 단적(端的)으로 나타내면, <포항(영일) 냉수리 비>(443 추정) → <봉평 신라비>(524) → <단양 적성비>(551) → <창녕 진흥왕순수비>(561) → <남산 신성2비>(591) →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傳 皇福寺址 삼층석탑) 사리함의 명문(銘文)>(706)으로 계승(繼承)되는 신라 특유의 서체라고 할 수 있다.⁴⁶⁾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근 기자회견 보도자료에서,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와 관련하여 ‘8세기 초 신라 제작설’의 근거로 든 ‘書體: 다라니경의 글씨체는 울진 봉평비·영일 냉수리비·황복사[지] 3층석탑 사리함 명문과 유사한 신라 특유의 서체임.’⁴⁷⁾이라고 보도한 맥락도 바로 위와 같은 논거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直接的)인 논증(論證)이라 할 수 있는 서체(書體)의 문제, 즉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傳 皇福寺址 삼층석탑)에서 발굴된 사리함 뚜껑(蓋部) 내면의 명문(銘文) 글씨의 서법(書法)과 「무구정광경」 권미제(卷尾題)의 필법(筆法)을 비교하여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림 7>의 왼쪽에 보이는 사리함 개부 내면의 명문

나 「무구정광경」은 중국에서 그것이 번역된 704년 이후에 사성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석가탑 「무구정광경」은 702년에 중국에서 사성·판각되었다’고 하는 潘吉星 및 중국측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46) 이에 대한 논증은 필자의 저술 중에서 ‘석가탑 「무구정광경」의 필법과 신라서법과의 비교’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161-196) 등에서 상세하게 논술되었으며, 더 이상의 재고(再考)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본고의 지면관계상 생략함.

47) 각주 27)의 본문, 참조 요.

중 제8행에 보이는 “無垢淨光大他羅尼經”을 탁본⁴⁸⁾한 부분을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크기로 축소·복사하여, 이를 「무구정광경」의 권미제와 대비시켜 보면 <그림 7>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림 7>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 사리함 개부(蓋部) 내면의 명문'⁴⁹⁾ 및 「무구정광경」 권말(卷末) 부분과 구황리 석탑 사리함의 명문 중 「무구정광경」 서명(書名) 부분 탁본과의 비교⁵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구정광경」 권미제 9글자의 필법과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 탁본의 동일 글자들의 서법을 육안(肉眼) 및 확대경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양자(兩者)는 그 필성(筆性)이 동일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두 작품은 특정 개인의 서사 습관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운필법(運筆法)을 보이는 양식(樣式)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인 특정 개인의 양식(個人樣式)에 의하여 각각 서사된 두 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컴퓨터그래픽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호비교를 실시하였다. 즉, 파워매킨토시7500/100기종에서 'Adobe Photoshop 5.0' 소프

48) 이 사리함 개부 내면의 명문 탁본은 {천해봉 편저, 『書藝·典籍』國寶12 (서울: 예경산업사, 1985), 19}의 부분을 활용하였음.

4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필자 촬영.

50) 김성수, “한국 인쇄문화의 始原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3집(1997. 6), 26.

트웨어를 활용하여, 준비된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사진에 나타나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아홉 글자를 평판스캐너(Flexmate 4000)에서 각각 스캔하고, 스캔된 문자들을 ‘Adobe Photoshop 5.0’에서 구현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나는 A화면에서 차례대로 재현하였다. 그리고 「무구정광경」 영인본의 권미제인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아홉 글자도 평판스캐너에서 스캔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8>의 B화면으로 각각 차례대로 재현하였다.

그 다음으로 A·B 두 화면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동일문자들의 화상을 각각 선택하고, 이들을 모니터상에서 하나의 큰 화면 내에서 화면을 분할하여, A·B 2개의 작은 화면으로 재현한 다음, 화면에 나타난 각 문자를 레이어를 이용하여 같은 크기의 비율로 각각 조정하였다.

그리고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에서 발췌한 문자의 화면을 바탕화면(A 화면)으로 하고, 「무구정광경」 권미제 문자의 화면(B화면)에서 각 문자의 윤곽만 남기고 먹(墨)의 검은 부분은 삭제한 상태로 변환시킨 화면(C화면)을 얻었다. 이같은 C화면을 다시 A화면으로 옮겨 이 두 화면을 중첩시킨 결과는 D화면의 그것들과 같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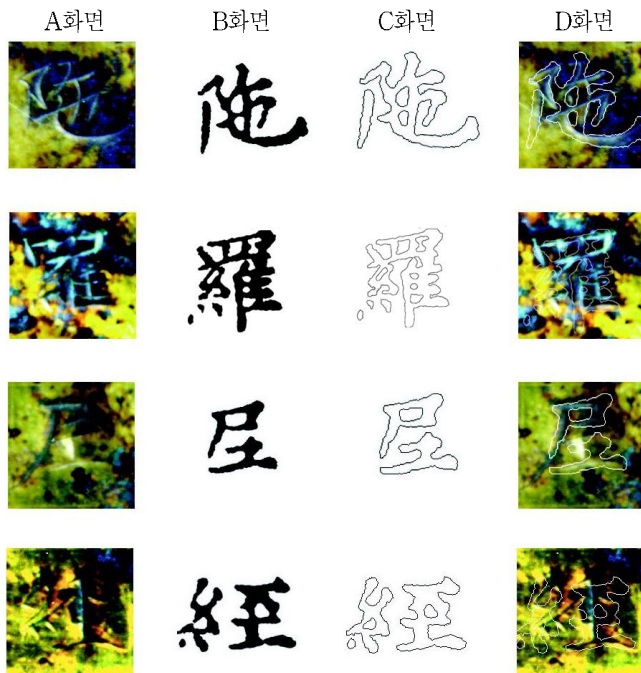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구정광경」의 권미제와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에 나타나는 동일문자인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아

51) 여기에서 미리 언급하여 둘 사항은,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 각 문자의 크기 즉 자경(字徑)은 0.4-0.8cm의 크기로써 각각 불규칙하다. 반면에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에 나타나는 동일글자 각 문자의 자경은 약 1.5cm로써 비교적 균정한 크기이다. 즉 크기가 서로 다른 문자들을, 동일 크기로 조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컴퓨터작업은 <조은출력센터>의 장비와 숙련된 그래픽전문가(田旻暲)의 장시간 정밀작업으로, 3차례(1997년 5월 2일, 10일, 19일)에 걸쳐 반복·추가·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書誌學研究」 제13집에 수록한 바 있다(金聖洙, “한국 인쇄문화의 시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3집(1997. 6), 25-31. 참조). 그런데 이 작업은 흑백화면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선명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에 본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위와 동일한 실습기자재 장비로써, 이재현 씨에 의하여 천연색화면으로 재차 확인작업도 수행하였다. 여기에 수록한 화면이 바로 그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각 글자부분의 비교를 위하여 화면에서 각 문자를 확대·축소하여 C화면을 A화면에 중첩할 때, C화면의 전체각도를 약간씩 회전·조정하여 중첩하였을 뿐, 각 문자그래픽에서 그밖의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가하지 않았음(不追加)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홉 글자들을 각각의 동일문자들을 상호 비교하여 본 결과, 이들 각 글자들의 구조 및 서법상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⁵²⁾



52) 이 화면 그림의 문자에 대한 서법(書法)의 설명을 위하여, 처음에는 서예학계의 <필법론> (筆法論)에 의한 운필법(運筆法)·결구법(結構法)·장법(章法) 등에 의한 논술을 시도하였으나, 그 논술이 오히려 일반인들을 납득시키는데 더욱 난해한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득이 이해하기 쉬운 일반용어를 사용하여 그 서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의 본문은, 필자의 학위논문(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인쇄술의 기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1999. 6).)과 저술(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등에서 그 핵심 사항들을 간추리고 다듬어서 다시 정리한 것임.



<그림 8>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A화면)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문자'(B화면)의 스캔 및 'B화면 문자의 윤곽'(C화면)을 A화면에 중첩시킨 결과(D화면)의 모습

첫째, '光'자의 경우, 그 상부의 제1획인 세로획을 서사할 때, 일반적인 서법에 서는 그 획의 필사에 있어 수직으로 내려쓰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A화면과 B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光'자의 세로획은 공히 수직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약 10도 정도 벗어난 부분에서 기필(起筆)하여 중앙부분으로 경사지게 내려쓰는 특징이 동일하다. 또한 '光'자의 제4획인 중간 부분의 긴 가로획을 쓸 때 좌하우상(左下右上)으로 약 20도의 각도로 올려 쓰는 특징 또한 동일하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가장 큰 특징은 '光' 하부의 받침부분 '儿'(어진사람 인)의 제2획을 쓸 때, 붓(筆)을 지면에 남동 방향으로 내리면서 기필(起筆)하고, 곧바로 남서 방향으로 선회하여 내려쓰다가 정동 방향으로 둥글게 선회하여 동으로 전개하는 행필(行筆) 과정과, 정북 방향으로 그 획을 마무리하는 수필(收筆)의 기법이

D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절묘하게 일치한다. 실제로 ‘光’자의 A화면과 C화면을 중첩하여 D화면으로 재현하였을 때, 두 화면 글자의 구조와 서법상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치 하나의 문자를 2개로 복사하여 분리시켰다가, 일단 분리시킨 것을 또다시 하나로 중첩하듯이 그 획의 크기까지 일치하였다.⁵³⁾

게다가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은 얇은 동판(銅版)에 송곳류의 뾰족한 도구로 눌러서 서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쓰여진 글자는 붓글씨의 중봉(中鋒)만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구정광경』은 닥종이에 붓으로 필사하였기 때문에 서예의 모습이 온전하다. 즉, 두 작품은 필사의 바탕과 필사도구가 각각 전혀 다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획의 크기가 서로 다른 A화면의 글자와 B화면의 글자를 동일 크기로 조정하였을 때, 조정된 두 획의 길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특히 2회의 전절(轉折)로 서사한 ‘光’ 하부의 받침부분 ‘儿’(어진 사람인)의 제2획 수필(收筆) 부분 획의 크기까지 일치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서예가가 큰 글씨를 쓸 때나 작은 글씨를 쓸 때 각각의 획을 필사하는 크기의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A화면 글자와 B화면 문자의 그 결구(結構)와 간가(間架)가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同一人)의 필사(筆寫) 습관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동일필법(同一筆法)에 의한 동일결구(同一結構)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글씨는 동일인물(同一人物)에 의한 필사(筆寫)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 ‘光’자에 대하여 『書道大字典』에 나타나는 117개의 ‘光’⁵⁴⁾자와 낱날이 그 서체상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자전에서는 구황리석탑

53) 다만 ‘儿’의 제2획의 위치에 있어,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획이 왼쪽으로 조금 당겨진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 서사(書寫)는, 동판을 밑바탕으로 하고 필사의 도구가 송곳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무구정경』 저본(底本)의 서사는, 닥종이(楮紙)를 밑바탕으로 하고 붓(筆)을 필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즉, 필사의 재료가 각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필사할 때에 그 손에 주어지는 힘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김응현·정환섭 등 서예경험이 오랜 서예가들은 “이만한 차이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증언하고 있다.

54) 伏見冲敬, 『書道大字典』(서울: 미술문화원, 1983), 156-158.

사리함의 명문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에 나오는 ‘光’자와 동일한 특징을 지닌 중국의 해서(楷書) ‘光’자는 단 한 자(一字)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위와 같은 ‘光’자에 대한 서법의 비교에서, 특정 개인의 오랜 습관에서 이루어진 운필법에 의한 서법의 양식임을 확신하고, 이와 같은 서법의 양식적 측면에서 일치한 점을 중시하여 볼 때,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을 음각(陰刻)한 서사자와 「무구정광경」의 권미제를 필사한 서사자는 동일인물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둘째, ‘淨’자의 경우, 이 문자는 일반적으로 우방(右旁) 부분을 쓸 때, 제5획의 가로획(‘尹’의 제1획)은 수평에서 동동북 방향으로 미약하게 상승되는 방법으로 전개하다가 세로획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남서 방향으로 내려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서도대자전」에 보이는 32자의 ‘淨’자 중 우방 제5획 세로획의 서법은 공히 남서 방향으로 내려쓰는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⁵⁵⁾ 그러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 B 두 화면의 ‘淨’자들은 공히 우방 제5획의 세로획을 오히려 남동 방향으로 내려쓰고 있다. 이는 곧 이 서법에서만 나타나는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우방 ‘尹’ 각 획의 결구(結構)와 간가(間架) 또한 절묘하게 일치한다. 또한 ‘淨’ 좌변의 ‘冫’를 쓸 때, A와 B 두 화면의 제1획과 제2획 기필(起筆)의 시작부분 및 운필법이 D화면에서 절묘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어느 특정개인의 운필(運筆)습관이 아니고는 도저히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陀’자의 경우,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A화면의 ‘陀’자는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 제8행의 다섯 번째 문자인 ‘陀’를 스캔한 것이고,⁵⁶⁾ B화면의 ‘陀’자와 비교하면서, A와 C화면을 중첩시켜 D화면을 재현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도대자전」에 보이는 해서에서는 이 ‘陀’자의 필법을 관찰하면, ‘陀’자 우방 ‘也’의 마지막 획인 제3획을 쓸 때 수직으로 내려쓰는 기법으

55) 伏見冲敬, 『書道大字典』 (서울: 미술문화원, 1983), 1304.

56)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 제8행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부분에서의 ‘陀’자는 동의 녹(銅綠)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캔하였을 때 모니터에서 좌변 세로획의 관독이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리함 명문 제8행상부에 “全金彌陀像” 부분에 ‘陀’ 동일자가 있으므로, 이 글자를 스캔하여 비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로 행필(行筆)하거나 또는 남서 방향으로 써내려 가다가 정동으로 선회하여 거의 수평으로 행필하면서 획을 긋는 경향을 보인다.⁵⁷⁾ 반면에 <그림 8>에 나타나는 ‘隨’자의 경우, A화면과 B화면에서 동일하게, 우방 ‘也’ 마지막 획의 운필법이 행서나 초서에 가까울 정도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획의 크기도 일치하다. 이 역시 특정 개인의 습관에 따른 특이(特異)한 서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림 8>의 ‘大’자의 경우, A와 C화면을 중첩하여 D화면으로 재현하였을 때, 제2획과 제3획 사이의 각도가 일치하고, 각 획의 크기 또한 일치한다.

다섯째, <그림 8>의 ‘無’·‘拏’·‘尼’·‘經’의 경우에도, 각각 A·B 두 화면의 육안비교와 이를 중첩한 D화면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획의 크기와 간가(間架)가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글자를 크게 쓰든 작게 쓰든 간에, 그 획을 쓰는 크기의 비율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곧 동일인물(同一人物)에 의한 서사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⁵⁸⁾

이상과 같이, 구황리 삼층석탑 사리함 명문의 서법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법에 대하여 ‘Adobe Photoshop 5.0’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의 화면에서 두 화면의 문자를 같은 크기의 비율로 조정하여 중첩시켰을 때, 이 두 화면의 글자가 동일문자처럼 하나로 겹쳐지는 것으로 보아, 그 운필법과 서법상의 양식적 특징이 서로 일치함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 양자를 육안으로 얼핏 보았을 때 그 필법이 서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은 얇은 금동판에 네모난 방격(方格: 界線)을 미리 그어놓고, 여기에 송곳과 같은 뾰족한 필기구로 손과 팔에 힘을 주어 글자를 눌러 쓴 관계로 그 서사에 일정한 형식(形式)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무구정광경』의

57) 伏見冲敬, 『書道大字典』 (서울: 미술문화원, 1983), 2355. 참조 요.

58) 따라서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법과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 서법과의 비교에서, 위와 같이 각 글자들의 특징이 양자간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림 8>의 각 화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서법의 특징은 그 어떤 중국의 범첩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운필법(運筆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또한 어느 특정개인의 독특한 서법상의 습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미제는 목판인쇄를 위한 저본을 먼저 필사하기 위하여 닥종이(楮紙)에 방격(가로 세로의 界線)이 없는 상태로 자간(字間)을 불규칙하게 필사한 결과가 되었다. 즉 서사의 형식이 서로 완전하게 다르다. 따라서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과 「무구정광경」의 권미제는 비록 동일인물이 각각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필기도구의 차이와 그리고 서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의 차이 및 서사형식의 차이에서 다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⁵⁹⁾

위와 같이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과 「무구정광경」의 권미제 글자를 비교할 때, 이 두 작품은 그 서법상의 형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기 컴퓨터그래픽 작업 분석결과와 같이, 서법구성(書法構成: 結構)의 특징과 개인의 습관에 의한 운필법(運筆法) 양식의 특징 등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이 두 작품의 그 필성(筆性)상 ‘동일한 양식’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에 대하여 강우방 교수는

樣式에 의하여 작품의 국적과 시대를 가려 작품의 編年을 세운다. 편년의 절대적 기준을 양식 파악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⁶⁰⁾

라 하여, 양식에 입각한 편년의 기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다.

따라서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법은 그 양식적 측면에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인물(同一人物)에 의하여 동일년도(同一年度)에 조성(造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동일인에 의하여 어떤 작품(글씨)을 쓴다 하더라도 매 년마다 그 글씨의 양식(style)이나

59) 작품에 있어서의 관건은 무엇을 표현했느냐는 형식(form)의 소재에 대한 물음보다는 어떻게 자기화 즉 토착화시켜 나갔느냐 하는 양식(style)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황리석탑의 사리함 명문과 「무구정광경」은 그 서법의 형식에 있어서, ‘오랜 형식과 새로운 형식이 함께 유행될 수도 있다’는 이론에 대한 좋은 방증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은 중국에서 통일신라로 새로 도입된 정형적인 형식을 활용하여, 금동관에 미리 가로·세로의 계선을 긋고, 선왕(先王)과 그 왕후의 명복을 빌고 현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중성과 엄격성에서 오는 숙연함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각 문자의 장법(行列)을 맞추어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0) 姜友邦, 「圓融과 調和」(서울: 열화당, 1996), 27.

형식(form)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글씨도 해마다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는 서예(書道)를 하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사항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과 「무구정광경」의 권미제는 그 필법(筆法)의 양식(style)이 일치하고, 각 획의 크기 비율이 동일(同一)하며 간가(間架) 또한 일치(一致)한다는 특징에 입각하여,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 서사자(書寫者)와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의 필사자(筆寫者)는 동일인물(同一人物)이며, 이 동일인물이 동일년도(同一年度)에 구황리석탑 사리함과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를 각각 다른 형식으로 사성(寫成)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위와 같은 논증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필자는 한국서법예술학계의 몇몇 권위자들과의 토론에서 그 검증을 시도하였다.

첫째, 한국 서예계의 원로인 학남(鶴南) 정환섭(鄭桓燮)⁶¹⁾ 선생은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 실측사진과 탁본 및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에 나타난 서법에 대하여, 50년 이상 작품생활을 한 체험에 입각하여 “동일인물(同一人物)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증명하였다.⁶²⁾

둘째, <國際書法藝術聯合會 韓國本部> 이사장인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 선생은, 필자가 제시한 「무구정경」의 권미제 및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의 글자를 컴퓨터작업으로 비교한 결과에서 조금 상이한 부분⁶³⁾까지 단숨에 엄정하고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양자[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부분과 「무구정광경」의 권미제 부분]는 ‘光·淨·羅·陀’자 등의 결구(結構)·간가(間架)의

61) 1960·1970년대 <國展> 서예부문 심사위원장 등 많은 공식적인 서예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50년 이상 서예작품활동에 매진한 한국서예계의 원로 서예가.

62) 학남(鶴南) 선생과의 대담·토론은, 1997년 6월 11일에 서울시 성북동 소재 자택으로 오국진(吳國鎭)과 함께 방문하여 이루어짐.

63) 여초(如初) 선생은 <그림 8>의 ‘陀’자 컴퓨터작업 부분이 명문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서의 ‘陀’와 다름을 즉각 지적하였다. 필자가 “이 부분의 ‘陀’자는 컴퓨터작업시 銅綠으로 인하여 천연색 화면에서 그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명문의 다른 행에 있는 ‘陀’자를 스캔하여 비교하였다”고 설명해야 할 만큼, 여초 선생은 상기 명문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법에 대하여 해안으로 감식(鑑識)하였다.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한사람(同一人物)이 서사한 것일 수 있다. [양자가] 원필(圓筆)과 방필(方筆)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필사도구(예컨대, 송곳류와 붓(筆))의 차이와 그 재료(예컨대, 銅版과 楮紙)의 완전한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러한 특징 등을 미리 전제하고 작품의 감식에 임해야 한다. 이 양자 조성상의 연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법예술사상의 관점을 고찰하면, 장법(章法)이 불규칙한 「무구정광경」 목판인쇄본이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보다] 시기적으로 반드시 앞서야 한다.⁶⁴⁾

라 하여,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의 필사자(筆寫者)와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서사자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초 선생은 이 검증과 함께, ‘서법예술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석가탑 「무구정경」 목판인쇄본이 구황리석탑의 명문보다 그 시기가 앞서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주장은 최완수(崔完秀) 선생의 증언·주장에서 또한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무구정광경」에서 나타나는(조판술상) 장법(章法)이 불규칙하고, 각 문자의 크기에 있어 대소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에서 신라(三國時代)의 전통적인 양식과 일치한다. 이런 특징에서 「무구정광경」이 한국(신라)에서 간행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항이다. ... 이런 것은 삼국시대의 비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의 경우는 고대(古代)로부터 장법이 균정(均整)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 이같은 측면에서 보면, 前者[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보다 後者[「무구정광경」 권미제]가 오히려 한국서예사적 측면에서 당연히 시대가 앞서야 한다. 이 두 작품은, 사경(寫經)에 있어 도제교육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사제간의 작품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양자가 동일인에게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⁶⁵⁾

64) 金聖洙, “한국 인쇄문화의 시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3집(1997. 6), 38. 재인용. 1977년 6월 14일, 필자가 <東方硏書會> 회장실을 방문하여 여초 선생과의 질의·토론에서 상기 진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 인용문은 토론중의 진술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각괄호안의 부분은 인용문 진술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자가 보충한 부분이다. 여초 선생은 이 진술 후에 신라비문 등 동방(한국)의 서법과 중국서법의 차이, 동방(한국)서법예술의 역사적·시대적 특징 등등에 대한 장시간에 걸친 자상한 강의도 곁들여 주었다.

65) 金聖洙, “한국 인쇄문화의 시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3집(1997. 6), 39. 재인용. 위의 인용문은 1997년 6월 7일에 선생의 연구실(韓國民族美術研究所)을 방문하여, 신라비문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上述한 「무구정광경」 권미제와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사진을 놓고 대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선생은 상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국민족미술의

라 하여, 상기 두 작품의 조성자가 한사람(同一人物)일 가능성을 증언하였으며, 오히려 「무구정광경」이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는, 구황리석탑 사리함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⁶⁶⁾이라는 명문이 있고, 사리함 발굴 당시 사리함 속에 권자본의 권축(卷軸) 등으로 볼 수 있는 세죽봉(細竹奉)이 발견되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943년에 구황리삼층석탑을 해체·개수할 당시 담당자의 한사람이었던 杉山信三은,

이 函 속에는 銀製 正立方體 舍利盒子와 坐像 立像 各 一軀의 佛像, 銀製 金銅製 高坏 各2個 計 4個, 無數한 琉璃製 勾玉과 珠玉, 銀製 小玉과 釧, 其他 異形 琉璃板 金絲 殘片과 細竹棒의 腐蝕한 것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函에는 물과 흙이 充填되었고 … 遺品도 그 속에서 다소 亂雜하게 쓰러져 있어서 安置 當時의 狀態를 확실히 알 수 없이 되었다.⁶⁷⁾

라 하여, 세죽봉이 존재하였음을 기술(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발굴 당시 이 세죽봉은 주목받지 못한 듯하다.⁶⁸⁾ 이홍직(李弘植) 교수 또한 1949년 이전에 작성한 “경주 낭산 동록 삼층석탑내 발견품(慶州狼山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논문에서, 杉山信三의 상기 인용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大陀羅尼經[「무구정광경」] 一卷은 보이지 않는다”⁶⁹⁾고 기술(記述)하고 있음을 보면, 그 당시에는 「무구정광경」의 실존 여부에만 관심을 표명하

시대적 양식과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부연하였다.

66)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탁본에는 “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나, 개부내면 명문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및 그 사진의 제8행의 마지막 부분에는, 도금(鍍金)이 양호한 상태 위에 “一”문자가 얹게 음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67) 杉山信三, 「朝鮮の石塔」(東京: 彰國社, 1944(昭和19)), 99.

68) 사리함 내의 유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거의 보존되어 있으나, 세죽봉은 산실된 듯하다. 필자는 1997년 4월 9일에 경주로 가서, 1943년 당시 <경주박물관>에 근무하였던 석현(昔炫)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당시의 발굴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았으나, 세죽봉에 대한 더 이상의 유익한 정보는 획득하지 못하였다.

69) 李弘植, 「韓國古文化論攷」(서울: 乙酉文化社, 1954(檀紀 4287)), 46.

고, 위의 세죽봉이 권자본의 권축(卷軸)일 것이라는 등의 추정은 염두에 두지 못한 듯하다.

상기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황리석탑을 보수할 당시에 그 사리함 속은 물과 흙이 충전(充填)된 상태여서,⁷⁰⁾ 세죽봉에 두루말이 형태로 감겨진 권자본의 종이는 모두 부식되고, 세죽봉은 보존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식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석가탑 「무구정광경」 목판판각의 년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석가탑과 불국사의 완공년대의 문제를 추적하는 것보다 구황리석탑 사리함에 납입된 「무구정광경」에 초점(焦點)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 속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일권(一卷)을 석탑 제이층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 사리함 속에서 권자본의 권축인 세죽봉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석가탑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법과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서법이 그 운필법상의 특징이 일치함으로써, 이 두 유물은 동일인물에 의하여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황리석탑 사리함에 목판인쇄로서 「무구정광경」이 납입공양되었을 개연성(蓋然性)은 아주 농후하다.

위와 같은 관점은 조명기(趙明基) 교수가 일찍이 간파하였다. 즉, 조명기 교수는 1982년 <동아시아 삼국인쇄문화교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의 토론에서,

중국에서는 탑 안에 실제로 집어 넣은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皇福寺塔[구황리석탑]을 세움으로부터 탑 속에 넣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경에 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그 뒤에 불국사 탑은 황복사탑[구황리석탑]보다 50년 뒤에 이룩되었는데, 陁羅尼經[석가탑 「무구정경」] 그것은 아마 황복사탑[구황리석탑]에 넣었던 그 판을 가지고 찍어서 넣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러니 불국사탑[석가탑]에 넣기 위해 목판을 만든 게 아니지요.⁷¹⁾

70) 심우준, “無垢淨光大他羅尼經의 刊年推定에 관한 論難,” 『書誌學的 諸問題』 (서울: 해진서관, 1995), 124. 재인용.

실제로 구황리석탑 금동사리외함 하단 측면의 일부가 심하게 부식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발굴 당시 사리공에 물과 흙먼지 등이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71) 이 인용문은 1982년 10월 30일에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삼국 인쇄문화교류에

라 하여, 석가탑 『무구정경』은 706년 구황리석탑의 사리함에 납탑공양하기 위하여 판각한 목판으로 인쇄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로 탁견(卓見)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판인쇄본의 간행년도는 그 인쇄를 위한 저본을 마련하고 목판으로 판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석가탑 『무구정광경』은 구황리석탑에 납탑공양하기 위하여 이미 완성된 목판 즉, 706년 당시 또는 그 이전에 판각된 『무구정광대다라경』 목판에서 석가탑 납탑공양용 『무구정광경』 인쇄본을 간행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석가탑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도의 문제는 그 목판판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황리석탑 사리함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납탑된 ‘706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본장에서는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법과 구황리석탑사리함 개부내면 명문의 서법이 그 양식적 측면에서 동일하며, 이는 한 사람(『무구정광경』의 경제필사(經題筆師))에 의하여 동일년도(同一年度)에 각각 조성되었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무구정광경』 목판판각의 년도는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납탑공양년도인 ‘706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立證)하였다.

4. 결 론

이상의 본론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목서지편으로 일컬어졌던 것이 근자에 <무구정광탑 중수기>로 판명되고, 또한 이의 해독에 따라 『무구정광경』 관련기록(記錄)이 최근 보장됨으로써, 『무구정광경』의 연구가 한층 더 가시적이고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석가탑 발견 일괄유물 중 동경(銅鏡) 및 유향을 쓴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중대사’라는 승려직책명 등과 관련하여 ‘석가탑 일괄유물이 고려시대의 것이 아

관한 국제학술회의>의 “討論資料”(沈隅俊 1995, 124)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조명기(趙明基)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다.

닌가?’ 또는 ‘유물이 신라의 것과 고려의 것이 혼재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종래 학계의 의혹을 이제는 불식시키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번 <중수기>의 내용 판독에 따라, 동경 및 목서지편 등 동도금사리외함의 바깥에 안치된 유물은 고려시대의 것이고, 「무구정광경」을 비롯한 시리외함 내의 유물은 신라의 것을 재안치한 것이 자명(自明)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제2장에서는 <무구정광경 중수기> 판독에 따른 어치구니없는 오독(誤讀)은 학술적·문화적·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임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간기(刊記)가 없는 고서의 간행년대 고증의 문제는 고문서학(고문헌학) 또는 교감학 등 단일 영역의 관점으로부터 접근할 때 빚어질 수 위험성 및 오류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구정광경」과 같은 간행기록이 없는 고서의 간행년대 고증의 문제는, 형태서지학을 비롯한 서지학 연구영역의 전방위(全方位)적인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서예학·문화재보존학·고고미술사학·(첨단)기초과학지원 등 인접학문 상호간의 공동연구 및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전반부에서 필자는 특히 「무구정광경」의 서체(筆法: 書法)에 나타나는 특징 등에 집중하여, 「무구정광경」의 필법을 중국 및 한국의 서법발전사(書法發展史)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구정광경」의 필법은 중국의 6세기의 서법과 흡사함을 파악하였다. 한편, 서법발전사상(書法發展史上) 중국의 6세기의 서법이 한반도에 전파되어 유행·정착하는데 무려 200년 즉 2세기가 소요됨을 확인함으로써, 「무구정광경」의 필법은 8세기초 신라의 서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무구정광경」의 필법은 신라 냉수리비(443년 추정)와 봉평 신라비(524) 등의 서법을 계승한 신라 특유의 필법임을 규명하였다.

넷째, 제3장의 후반부에서 필자는 석가탑 발견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문제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傳 皇福寺社 삼층석탑)’에서 발굴된 사리함 뚜껑(蓋部) 내면의 명문(銘文) 글씨의 서법(書法)과 「무구정광경」 권미제(卷尾題)의 필법(筆法)을 컴퓨터그래픽에 의하여 비교·논증하였다. 그 결

과,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글씨는 그 필법(筆法)의 양식(style)이 일치하고, 각 획의 크기 비율이 동일(同一)하며, 간가(間架) 또한 일치(一致)한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에 입각하여,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명문 서사자(書寫者)와 석가탑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필사자(筆寫者)는 동일인물(同一人物)이며, 이 동일인물이 동일년도(同一年度)에 구황리석탑 사리함과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를 각각 다른 형식으로 사성(寫成)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刊行時期: 목판 판각의 년도)는 구황리석탑 사리함 명문의 서사(書寫)년도인 '706년'임을 입증(立證)하였다.

<참고 문헌>

- 姜友邦, “佛舍利莊嚴論.” 「佛舍利莊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1.
- 姜友邦, 「圓融과 調和」. 서울: 열화당, 1996.
- 國立中央博物館 保存科學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紙質成分.”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復原(內部) 報告書」.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1989.의 요약문.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諸異說의 分析.” 「國際文化研究」(淸州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第9輯(1992), 109-136.
- 金聖洙, “韓國 木板印刷의 起源年代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書誌學會) 第10輯(1994), 425-478.
- 金聖洙, “韓國 印刷文化의 始原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3輯(1997. 6), 1-46.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4輯(1997. 12), 43-74.
- 金聖洙, “「無垢淨光經」의 刊行과 關聯한 몇 가지 論證.” 「書誌學研究」 第16輯(1998. 12), 157-182.
-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인쇄술의 기원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1999. 6).
- 김성수. “석가탑 「무구정경」 바탕종이 및 무주자의 사용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323-344.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項 考證에 의한 世界木板印刷圖書의 起源에 관한 研究(A Study on the Origin of Printed Books in the world by investigation on publication information on ‘Mugujonggwang daedaranigyong’”.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Origin of Printing (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 주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개최일시: 1999년 10월 19일 - 10월 20일, 개최장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65-143.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漢譯年度 및 刊行地에 관한 研究.” 「東方學志」(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第百六輯(1999. 12). 43-126.
- 김성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項 考證에 의한 韓國印刷文化의 起源年代 研究.” 「書誌學研究」第19輯(2000. 6), 403-501.
-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 김성수. “석가탑 「無垢淨經」의 陀羅尼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第20輯(2000. 12), 299-323.
- 김성수. “「무구정광경」의 간행에 관한 중국측 반론에 대한 비판.”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477-506.
- 김성수. “「무구정경」의 서법에 관한 분석.” 「書藝學研究」 제4호(2004. 5), 131-193.
- 김승욱 기자, “석가탑 창건기에 무구정경 두 종류 봉안,” 「연합뉴스」 2007년 3월 21일, 09:31 송고. <http://app.yonhapnews.co.kr>
- 김태식 기자. “무구정광다라니경 통일신라시대 작품 맞아.” 「연합뉴스」 2007년 3월 9일(17:28), <http://app.yonhapnews.co.kr>
- 박지선. “기록물의 복원사례.” 「기록보존과 관리」 창간호(1996), 26-29.
- 潘吉星. 「中國造紙技術史稿」.(北京: 文物出版社, 1979).
- 伏見冲敬. 「書道大字典」. 서울: 미술문화원, 1983.

-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東京: 彰國社, 1944(昭和19).
- 송수영. “高麗 寫經書體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8.
- 徐祖番 等編. 「敦煌遺書書法選」. 甘肅省: 甘肅人民出版社, 1985.
- 神田喜一郎 著, 崔長潤 譯. 「中國書道史」. 서울: 운림필방, 1985.
- 심우준. 「書誌學의 諸問題」. 서울: 혜진서관, 1995.
- 안승준.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의 解讀.” <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 발표문(별첨자료)>.
- 劉正成 編. 「中國書法鑑賞大辭典」上卷. 北京: 大地出版社, 1989.
- 李弘植. 「韓國古文化論攷」. 서울: 乙酉文化社, 1954(檀紀 4287).
- 이흥직. “慶州 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제4호 (1968. 5), 168-198.
- 천혜봉 편저. 「書藝・典籍」. 國寶12. 서울: 예경산업사, 1985.
- 黃思源 編. 「中國書法通鑒」. 河南省: 河南美術出版社, 1988.
- <국립중앙박물관> http://museum.go.kr/kor/int/int_boa_new_vie.jsp
- <국립중앙박물관> http://museum.go.kr/kor/int/int_boa_new_vie.jsp 중수기
관련 보도자료, <자료 1 :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관독문>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____記.

КСІ